

관람+강연+토론...광주비엔날레 깊이 읽기

전시 큐레이터·인문학자·시민 함께하는 강좌 마련
시민자유대학·비엔날레 재단 14일~11월 16일 진행
김만석·김성우·백종욱 큐레이터 전시 소개도

현대미술의 축제 2018 광주비엔날레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는 강좌가 마련된다. 광주비엔날레 전시큐레이터와 인문학자, 시민들이 함께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전시된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하며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민자유대학(학장 장복동)과 광주비엔날레는 협력강좌 프로그램으로 '상상된 경계들, 경계머리 상상들-2018 광주비엔날레 읽기'를 진행한다. 오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오전10시~낮 12시30분) 9회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전시 기간 동안 7개 주제전을 함께 관람한 후 동시대 아젠다에 공감하며 서로의 비평과 상상을 소통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15일 열리는 1강에서는 이 제임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이 '상상된 경계들:

2018 광주비엔날레를 말한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인문학자의 전시 읽기'는 3차례 진행된다. 김향 연세대 교수가 '경계라는 환영을 마주하며' (2강), 강우성 서울대 교수가 '종말들:포스트 인터넷 시대의 참여정치' (3강)를 주제로 강의하며 최행준 전남대 학술교수가 '지진:충돌하는 경계들과 '북한미술:사회주의의 사실주의의 패러독스' (8강)전에 대해 이야기한다. 전시를 직접 기획한 큐레이터의 생생한 목소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생존의 기술:집결하기, 지속하기, 변화하기' 색션을 기획한 김만석(집결지와 비장소), 김성우(한시적 추동), 백종욱(대칭적 상상력) 큐레이터가 각각의 전시에 대해 소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예술, 경계를 사유하다'를 주제로 박구용 시민자유대학 이사장과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이



광주비엔날레 재단과 시민자유대학은 14일부터 9주간 '비엔날레 읽기' 강좌를 마련한다. 2018 광주비엔날레 전시장 모습.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사자 대화를 나눈다. 한편 시민자유대학은 동서양 고전 읽기 기획도 마련했다. 루선 연구자 이주노 전남대 교수가 '루선을 읽다-절망에의 반항'을 진행하며 박정민 전남대 교수와 함께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읽는다. 또 '난민'과 '이민'에 대한 고민을 영화적 시선으로 함께

하는 '영화인문학-타인과 함께 살기'에서는 전남대 학술연구교수이자 영화제 프로그래머인 이상훈 교수와 함께 '언터처블: 1%의 우정', '이민자' 등을 감상한다. 시민자유대학 홈페이지(cafe.daum.net/volkshochschule). 문의 062-961-111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지난 6일 오전 평소 친분이 있는 화가 A씨로부터 한통의 안부전화를 받았다. 날씨도 선선해졌으니 조만간 점심이나 같이 하자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서 조심스런 목소리로 "혹시 광주시립미술관장은 누가 될 것 같냐"고 물었다. 신문사에 있으니 들은 게 있으면 살짝 알려 달라면서. 순간, 오랜만에 연락한 그의 속내를 엿본 것 같아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신빙성 있는 정보가 없던 터라 그의 궁금증을 풀어주지는 못했다.

그날 오후, 2018 광주비엔날레 프레스오픈과 개막식이 진행된 비엔날레 재단 안팎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다. 전시장 곳곳에 삼삼오오 모인 미술

부산출신 전승보(54)전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전시감독이 선정됐다. 전시기획자이자 타지 출신의 미술관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17대 1이라는 전무후무한(?) 경쟁률을 뚫은 전 관장은 세종대 미대, 런던 골드스미스대학원 미술행정 및 큐레이터십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008부산비엔날레·세종문화회관 전시감독 등을 역임했다. 제2회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 2013년 아시아문화개발원 상설전시 책임연구자로 활동하는 등 광주와도 인연이 깊다.

사실 전 선임관장의 선정은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였다. 공모절차가 진행된 동안 대부분의 후보가 회자됐지만 그의 이름 석자는 거의 언급조차 없었

'한점 미술관'과 광주

계 인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미술관장 이야기를 꺼냈다. "중견서양화가 B가 최종 후보로 낙점됐다더라" "지역미술계의 신망이 두터운 전시기획자 C가 유력 하더라" 등등... 최종 후보자(?)의 이름과 프로필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오르 내렸다. 국내 최대 미술축제인 비엔날레 개막일이었지만 일부 미술인들의 관심은 시립미술관장에 있는 듯 했다.

새 시립미술관장의 최종 발표(7일)를 하루 앞둔 이날 풍경은 시립미술관에 대한 미술인들의 기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광주미술의 미래 보다는 정작 '자리'에 더 관심이 있는 듯해 씁쓸함을 남긴다. 창작자대(對) 기획자, 지역 대 타지역 출신의 프레임으로 나눠 어떤 후보가 자신에게 득이 될 것인지를 따지는 것 같아 서다.

최근 올 여름 지역 미술계를 뜨겁게 달궜던 민선 7기 초대 시립미술관장에

다. 이때문에 요즘엔 일부 작가들로부터 전 관장의 과거 활동과 '스타일'을 물어보는 전화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큐레이터 출신의 관장에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역미술과의 소통을 우려한다. 그럼에도 많은 미술인들은 신임 관장이 전문성과 중장기적 비전으로 광주미술의 큰 그림을 그려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문득, 오래전 사석에서 '한점 미술관'을 운운했던 그의 목소리가 떠오른다. "광주에 살면서 가장 인상적인 건 그림이 내걸린 사무실과 식당이 많다는 거예요. 고급 식당은 말할 것도 없고 허름한 삼겹살집에도 풍양화 한점이 걸려 있더라. 이런 '한점 미술관'들이 예향광주를 빛내는 저력이지 매력 같아요." 바라건대, 그때의 '따뜻한' 시선으로 지역미술을 들여다 보고 보듬어 주기를.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공연 모습.

'광주 천사들'의 하모니 가을밤 수 놓는다

광주시소년소녀합창제 14~15일 문예회관 대극장

광주 천사들의 하모니가 가을밤을 수놓는다. 제2회 광주시소년소녀합창제가 오는 14~15일 오후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지역 합창단 15개 팀 500여 명이 참가한다. 올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광주문예회관이 주최하고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주관한다. 합창제에서는 50여 곡의 동요, 가곡, 민요, 영어 가요 등으로 무대를 꾸민다. 첫날에는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FIAT DOMINI 소년합창단과 신창초등학교 꿈소리 합창단, 민들레 kinder 중창단, 살레시오여중 해울음 합창단, 광주 어린이 요들

합창단, 화순 제일초 합창단, 꿈을 품은 메아리 합창단 등이 참가한다. 다음 날에는 GFN 광주영어방송 소년소녀합창단, 광주 파랑새 합창단, 광주송원초 합창단,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광주CBS소년소녀합창단, 광주KBS 어린이합창단, 광주동신여중 Brillante 합창단 등이 무대를 꾸민다. 42년 전통의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양일 무대에 올라 박정선 '폴카시 만들며', 신상우 '우리집'을 선보인다. 양일 마지막 무대는 전 출연진이 '아빠 사랑해요'를 함께 부르며 마무리 한다. 광주문예회관 홈페이지(gjart.gwangju.go.kr)에서 1인 1인 10매까지 무료로 예매할 수 있다. 문의 062-613-824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노래하는 스님' 범능 5주기 산사음악회

15일 화순 개천사

'노래하는 스님' 범능(사진) 5주기를 기념하는 산사음악회 '범능 정세현 음악에 물들다'가 오는 15일 오후 6시 30분 화순 개천사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사)불지불교문화원과 개천사가 주최 및 주관하고 화순군이 후원했다. 이날 공연은 범능이 작곡하고 노래한 음악들로 채워진다. 이병채, 문기연, 부루나 로터스불교합창단, 무지개선율 어린이중창단들이 출연해 범능이 밝은 길을 돌아볼 예정이다. 윤진철 명창이 '심청가' 중 심봉사 눈뜨는 대목과 흥타령으로



관객을 만나고 신촌블루스에서 활동했던 블루스 디바 강허달림이 가을밤 무대를 수놓을 예정이다. 범능은 화순 불지사에 머물며 소아암백혈병 어린이들 산사음악회, 외국인노동자 컴퓨터 모금행사 등 이웃을 위해 활동했다. 문의 061-373-1301.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내일 풍암호수공원에서 동신한마음음악회

'제1회 동신한마음 음악회'가 오는 13일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풍암호수공원 야외 무대에서 열린다. 광주 동신고등학교 총동창회가 올해 처음 개최하는 이번 음악회는 신선호 전 광주시청차미디어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태극힐링난타 최광일씨의 흥겨운 난타 공연으로 막을 열고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 중 '내가 거리를 걸을 때면'과 마스카니의 '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아베 마리아'가 소프라노 유형민의 목소리로 울려 퍼진다. 전권, 문경환, 김종필, 이승호, 이명호씨



소프라노 유형민



대금 조철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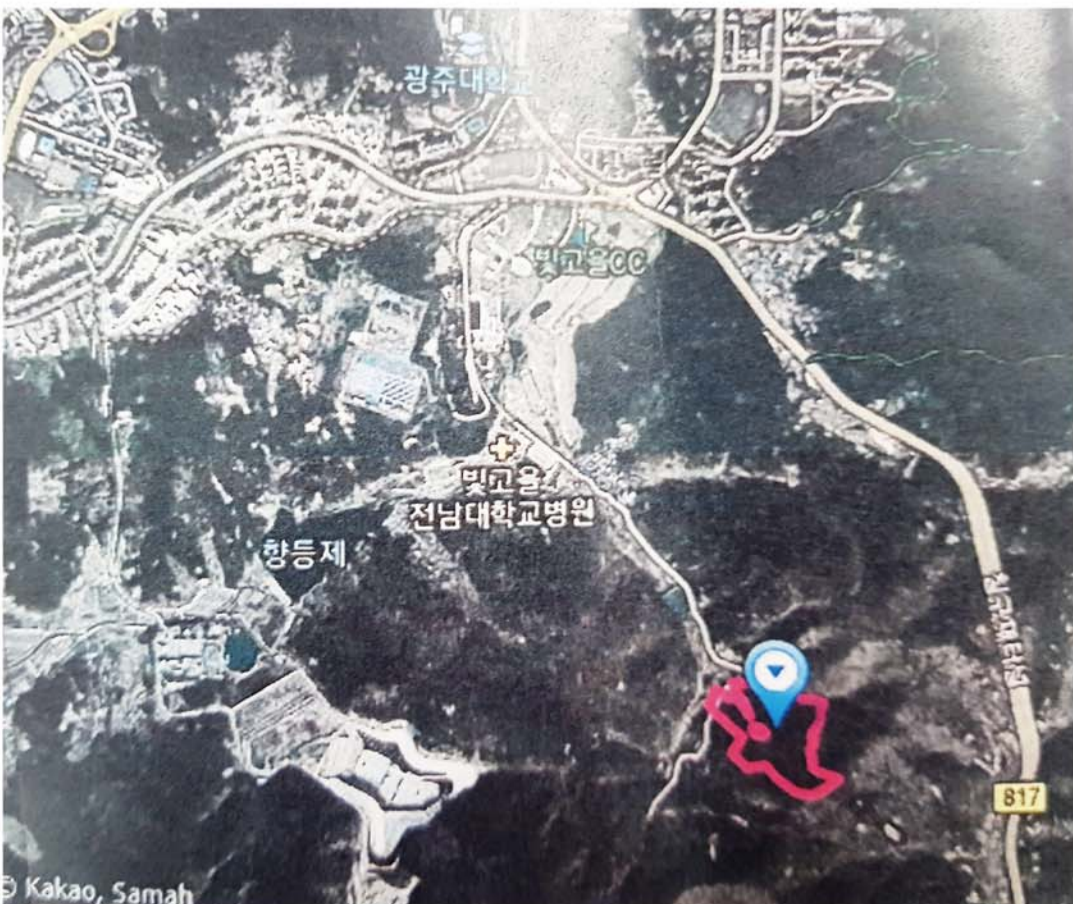
로 구성된 4중창 '아낌없이 주는 나무' 팀이 '기도', '아름다운 사람'을 무대에 올린다. 무료 관람. 문의 010-6778-2323.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나주문화재단연구소 14일 '복암리 정촌고분' 학술대회

국립나주문화재단연구소(소장 박종익)는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오는 14일 대회의실(오후 1시)에서 개최한다. '고대 한·일의 화살통과 장식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화살통과 장식칼을 주제로 고대 나주 복암리 사회의 모습을 조명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금동신발로 큰 관심을 받

은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에는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여러 유물이 있다. 대표적인 유물이 장식칼과 화살통이다. 이날 발표할 주제는 '고대 한국의 화살통과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오동선), '고대 한국의 모자대도와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이건용), '나주 정촌고분 추돌 화살통과 모자대도의 재료학적 분석' (이혜연) 등이다. 문의 061-339-1122. /박성원 기자 skypark@kwangju.co.kr

장/단기 투자가치 좋습니다. 덕남동 임야, 싸게 팝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20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3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이전비용 매도자부담)
- 문의. 010-6834-7400